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 월 24 일에 Sunday School VBS 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심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고 식사 및 진행과
관련해서 Volunteer 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부탁드립니다.

2017 년 5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백희진 집사/시편 68:1-10, 32-35
 이번 주 친교: 안상민/황혜영 집사
 다음 주 친교: 윤미경/황인선 사모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예배순서

2017년 5월 21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35 장(통 50 장) “큰 영화로우신 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66:8-20	민홍기 집사
찬양(Choir)	“에벤에셀 하나님”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5:16-26	인도자
설교 (Sermon)	“그가 내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185 장(통 179 장) “이 기쁜 소식을”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5. 14. 주일 설교 요약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갈 5:1-15)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와 우상의 종노릇하던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인 동시에, 율법주의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방인으로 살던 때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율법 전체에 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탕감해 주셨는데 아직도 자기 힘으로 갚으려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빛진 자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더 나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의 신체 기관을 아예 “잘라버렸으며 좋겠다”고까지 말하며 그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사슬과 사망의 굴레에 묶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과 명예와 부귀는 오히려 우리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리려하는 자유도 오히려 사슬이 되어 우리를 고통과 불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참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 묶여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야 자유로운게 아니고 오히려 물 속에서 자기자신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성령과 은혜로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에 매여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본문의 언어들도 그 역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대신 예수의 멍에를 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율법의 종노릇은 벗어났지만 사랑의 종으로 서로를 섬기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빛을 예수님의 의로움이 갹아주신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설득되어 순종하라 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롬 1:1)이며 또한 성도들의 종이라고(고후 4:5) 합니다. 복음에 빛진 자(롬 13:8)로서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롬 13:8) 합니다.

사랑의 종노릇도, 예수의 멍에도, 사랑의 빛도 여전히 구속적이고 부담입니다. 실제로 손해보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욕심을 포기하는 고난이 없이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서 자유입니다. 생각만으로는 고난이고 부담일 뿐이지만, 실제로 그 길에 발을 내딛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생각만으로는 종노릇하면 못건널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 올라보면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끝까지 이루실 구원이기에 지금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율법을 지킨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시라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선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 때, 그 길을 따를 때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더 잘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손과 발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길에 들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